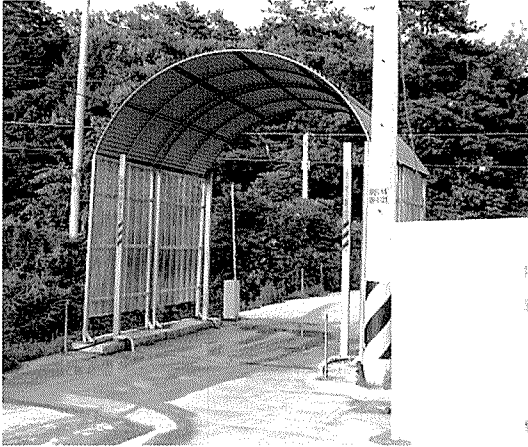


오리알 하나하나에 모든 정성을 쏟아 낸다. 솔잎부화장



▶ 부화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소독기.

근 몇 년간 계속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악몽과 폭설 및 폭우 등의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오리업계는 오리고기 소비량의 증가와 오리시세 상승유지로 업계의 부흥기를 맞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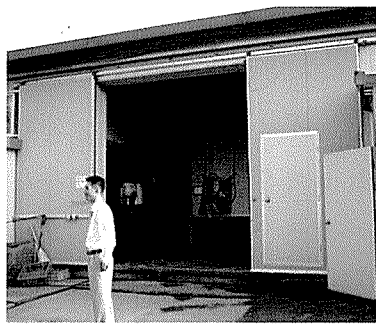
이러한 호기를 놓칠세라 너도나도 물량을 늘리고 있는 시점에 욕심내지 않고 오로지 적정물량을 고수하는 부화장이 있다.

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솔잎부화장(대표: 차준열)이 바로 그곳이다.

영동고속도로에서 이천방면 샛길로 들어서

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약 1km쯤 지나니 우리가 찾던 솔잎부화장이 보이기 시작했다. 잔뜩 찌푸린 채 비를 뿌려대는 서울하늘과는 달리 이천의 하늘은 맑고 평온해 보이기 그지없었다.

초입에 들어서자 차량소독기가 기다렸다는 듯 소독약을 내뿜었고 차량을 깨끗이 소독하고 나서야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.



▶ 부화장 입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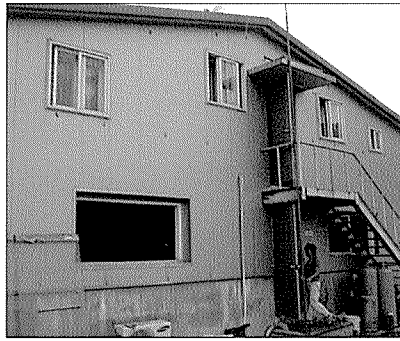
솔잎 부화장은 2003년 종계사업이 어려운 시국을 맞

게 되어 더 이상 종계업만으로는 힘들다는 판단 하에 프랑스의 그리므드사 종오리를 수입하면서 종오리 부화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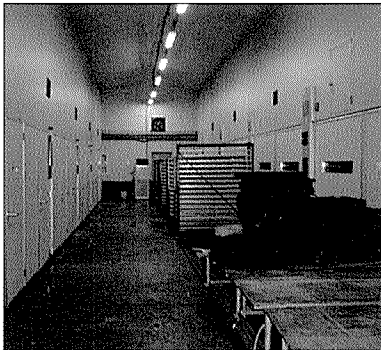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오리업계에 발들인 첫해에 국내 AI발생으로 고통을 겪고 2004년 물량감축을 위한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새끼오리를 구경도 못하

고 종란을 폐기해야 했던 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존에 종계를 사육했던 노하우와 오리알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기울인다는 신념으로 지금껏 일해 왔다는 차준열 대표의 모습에서 강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다.

그래서인지 현재는 종오리와 종계 부화사업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실제로 종오리 부화율 평균 80%라는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



▶ 부화장 외부 전경.



▶ 부화장 내부. 왼편은 육용오리부화기, 오른편은 육계부화기이다.



▶ 소규모 사육자나 애완용으로 농장 한켠에서 자라고 있는 새끼 오리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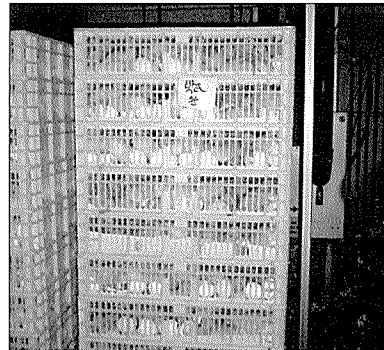
었다.

사장님의 안내에 따라 부화실 내부를 볼 수 있었는데 입구에서 보았을 때 왼편이 육용오리 부화실로 일일 최대 입란수가 약 5만수, 오른편이 육계 부화실로 일일 최대 입란수가 약 23만수 가량으로 철저히 전자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었다.

한편, 농장 한 켠에는 소규모로 사육하는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부탁하는 경우 분양해 주기 위해 100여수의 새끼오리를 따로 키우고 있었다.

의외였던 사실은 일반적으로 오리

는 “꽤 꽤” 하고 운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오리 새끼들은 오히려 병아리처럼 “삐약”거리며 우는 것에 더



▶ 부화실에서 깨어나고 있는 새끼오리들, 열려 나가고 싶다고 말하듯 울고 있다.

가까웠다는 것이다.

어느 생물이냐 마찬가지로 새로 태어난 생명들은 하나같이 예쁘고 귀엽지만 이리 뒤뚱 저리 뒤뚱하는 새끼오리를 보니 왠지 더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.

해가 질 무렵 차준열 대표와 함께 음료를 마시며 오리업계 현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. 차대표는 지금 거래하고 있는 곳에 충실히 새끼오리를 공급해 주는 데 만족하고 모두 육심부리기 보다는 오리업을 좀 더 성숙하게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으로 인터뷰를 끝마쳤다.